

박재현 선교사와 사역 소개

2022년 3월 3일

박재현/정은실 선교사

사역지 : 남미 콜롬비아 라 과히라 la Guajira,

이력/소속 :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졸업, KAICAM 목사안수, 2016년 GMI 파송

사역에 대한 소개와 계획

현재는 두 가지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어린이 기독학교 2)목회자 성경신학교입니다. 미래에 이 두 사역은 상호 연계되어 확장될 것인데, 1)목회자 신학교를 타 지역으로 확장해 건강한 신학을 제공해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2)성경공부에 열심인 목회자의 교회에 우선하여 어린이 분교를 설립할 것이고 3)100 만의 미전도종족 인디언 가운데 교회를 개척할 것이며 4)인근 한 시간 거리의 베네수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선교사역 원칙이 있습니다. 1)선교사가 필요하나 선교사가 없는 곳에서 살고 사역한다. 2)현지인 사역자가 하지 못하는 필요한 사역을 한다. 3)처음부터 사역의 이양 가능성이 있는 현지인을 찾아 동역한다. 4)구호사역보다는(포함하나) 양육과 교육사역이 우선이다.

선교지 콜롬비아의 라 과히라 la guajira 는 몇 가지 선교적 의의가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1)인구대비 최소의 한국인 선교사가 사역합니다(5 천만명/7 가정) 라 과히라에는, 2)100 만명의 미전도종족 인디언이 있습니다. 3)남미 최대의 이슬람 포교센터/모스크/종교학교가 활동하므로 저지해야 합니다 4)지난 5년간 4 천명의 어린이들이 기아로 사망한 콜롬비아 최대 그룹의 빈민지역이며 최소 복음화지역입니다 5)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1980년 이후로 단 한명의 외국인 선교사도 없었던 곳입니다.

아마 동양인으로서 제가 라 과히라에서 역사상 최초이며 유일한 주민등록한 사람일 듯 하며 현재 외국인 선교사로 인근 5시간 거리 내 3-5백만명 중 유일합니다. 선교사가 없는 이유는 살기에 너무 열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가치는 동일해서 그곳의 사람들에게도 구주 예수님과 성경 그리고 복음은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

- 1.길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도록
- 2.빈민촌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공부가 잘 정착되도록
- 3.목회자 성경 세미나가 부흥하도록
- 4.3월 약품나눔과 4월 성경 세미나 이벤트가 은혜롭게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 5.학교운영/교실건축/성경 세미나를 위한 믿음의 동역자(교사/목회자)들을 만나도록
- 6.담장 건축/양계장(아린이 급식 목적) 필요 채워지도록
- 7.질병/위험한 운전 환경/불안한 치안 등으로부터 건강하며 안전하도록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선교 이야기

2021/10/29 콜롬비아 박재현 선교사

콜롬비아 정부는 얼마 전 발표하기를 '전 국민의 90%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었다'고 했습니다.

4명의 청년 교사들도 확실한 무증상 감염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건강합니다. 주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50대도 무증상 감염이 되나요... 돌파 감염도 있다는데... 저는 왜 감염되지 않을까요...



2년째 학교는 휴교. 인터넷 수업도 못하는 이곳 아이들... 더위와 목마름 또 배고픔...



다시 모인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선풍기도 없는 곳에 냄새까지... 그래도 아이들은 즐겁습니다. 시원한 얼음 가루쥬스와 빵이 있으니까요... 이웃집 아기와 강아지까지 데려 오네요...



열심히 안아줬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가난한 아이들은 사랑에도 많이 배고프거든요...



아이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제법 재
롱도 보여 줍니다.
그냥 맛있는 것과 선물 주면 500명도 쉽게 모
을 수 있는 곳입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출석율과 태도에 따라 100명 이하로 수업 적정
인원을 만듭니다.



중요한 사역원칙!!! 이곳은 구호기관이 아닙니다. 교회학교입니다.
지각하지 않고 꾸준히 출석해야 정식 학생이 됩니다. 그 후에, 마스크/비타민/간식/성탄절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찬양/수학/스페인어를 가르칩니다. 글을 못 읽는 고학년이 있습니다



3개반 연령대별로 나뉜 학생들이 이제 수업에 익숙해 졌습니다.



수업준비를 돕는 아이들 대견하죠? 그런데 이곳의 아이들은 공부보다 노동이 더 익숙하답니다.



슬며시 다가 온 유아반 학생이 그림을 내줍니다. 제게 자랑하고 싶은가 봅니다. 이쁜 것들...^^



장애인/비장애인 통합교실과 조리실 건축 현장입니다. 주 전체에 장애인 교육시설이 없습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해 실내에 손 씻는 곳을 만들고 옆에 조리실을 짓고 있습니다. 주 통틀어 학교 공공시설 전체에 (장애인을 위해) 실내에 어린이용 작은 손 씻는 시설은 저희가 최초일 겁니다.

어쨌든 판 세상 이야기 같은 이곳의 사연을 드립니다.

장애인교실과 조리실 건축을 완공해서 고깃국 먹는 사진을 드리고 싶어서 선교소식이 늦어졌습니다.

건축이 원래 계획보다 한달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리실의 타일/배수 공사가 교실과 달리 일이 많고 돈이 드네요. 또, 인부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3주 휴식을 취했거든요. 전 국민의 90%가 감염되어도 여전히 새롭게 감염이 되기도 하네요.

그런데, 저는 왜 감염이 되지 않을까요... 차에 청년 교사들을 태우고 학교를 오가며 에어컨을 세게 틀고 온갖 얘기들을 나누는데 말이죠. 꿈들의 집에서는 마스크 안 하는 아이들 잔뜩 안아 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의 사역을 참 기쁘게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외국인인 선교사는, 선교사역이 필요한 곳에서, 현지인이 하지 못하는 사역을 한다'라는 원칙 때문에 이곳에 왔죠. 지난 40년 동안 선교사가 없었던 이곳이다 보니 주님께서 직접 챙겨주시는 것을 자주 체험합니다. 저는 참 부족한데 주님이 채워주셔서 사역하고 살아갑니다.

아내의 신장 투석을 도우며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집사님... D단체의 헌신...

교회들의 후원... 넉넉지 않음에도 선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사랑에 항상 가슴이 먹먹합니다.

고깃국 먹는 사진은 연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이 한 청교도 지도자가 통나무집에서 자녀들을 학생으로 입학시켜 시작한게 기원이더군요. 주 전체에 단 한 개도 없는 장애인을 위한 교실을 짓게 되어 기쁩니다. 작더라도 알찬 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